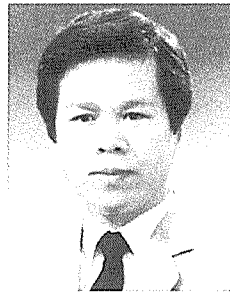


2002년 국제석유시장 전망과 과제



이 문 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지난해의 회고

2001년은 돌이켜보면 연중 지속된 세계경제성장 둔화 현상 그리고 특히 9월 11일에 발생한 다시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미국의 항공기테러 사건, 그리고 그 테러와의 전쟁으로 온통 뒤엉켰던 한해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상반기부터 이어져 왔던 세계경기 침체 상황은 석유수요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 약세국면을 보일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OPEC 산유국들의 발빠른 감산 대응과 원유수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라크 정부와 UN 안보리간의 대립으로 이라크 원유수출이 간

간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테러사건 발생 이전까지 국제유가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강보합의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항공기테러 사건 발생 이후, 국제유가는 사건발생 초기에 나타나던 급등에 대한 우려감과는 다르게 곧 폭락세로 발전되었으며 하락추세는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이는 물론 테러사건 이후 이어진 급격한 세계경기 냉각으로 인한 석유소비 위축의 확대, 특히 항공유 수요의 폭락, 비OPEC 산유국의 공급물량 증가와 미국 등 소비국의 재고 증가에 따른 석유의 상대적인 공급

IT산업의 발달로

안정이 주요인이었다. 대 테러전
쟁이 연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고 중동 등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도 유가를 약
세에 머물게한 요인이었다.
2001년 연말 OPEC 바스켓 가
격은 배럴당 18달러를 기록하여
OPEC이 설정한 목표가격 하한기준
인 배럴당 22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
으로 마감되었다.

시장관련 정보가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선물시장을 중심으로 가격변동

폭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업의 발달로 시장관련 정보가 순식
간에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
문에 석유선물시장을 중심으로
가격변동 폭이 과거와는 달리 매
우 커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과거 90년대 전반에는 연간 원유가
격 변동폭이 배럴 당 5달러 내외의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0달러를 넘어
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석유시장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 국제석유시장 핵심요인의 해석과 전망

지난 3년 동안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유가의 폭락
과 폭등을 겪어 오면서 몇 가지 과거와 달라진 흐름
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OPEC이 시장변화에 대
처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매우 신속하고 유연해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연간 2회 개최되는 정기
총회에서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산유량의 증산 혹은
감산을 결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총회를 개최하거나 긴급 시에는 회원
국간의 채널을 가동하여 유가보전을 위한 산유량 조
정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 하나는 과거
OPEC 회원국 사이에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간의 대
립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대립의 벽이 얇어
지고 있다. 이 때문에 OPEC의 시장 대응 능력이 유
연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IT산

2002년도에 예상되는 국제유가 등락에 영향을 미
칠 주요한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수요측면에서 침체상황의
세계경제가 언제쯤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인가 하
는 문제이다. 둘째는 공급측면에서 OPEC을 포함한
산유국들의 감산과 증산 등 생산 전략이다. 셋째는
이라크 원유수출의 지속성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대한 확전 가능성과 중동평화
에 관한 문제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된 대 테
러전쟁이 사실상 끝난 현시점에서 보면 확전과 그에
대한 시장영향에 대한 우려의 가능성은 상당부분 누
그러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며, 이스
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은 중동지
역에서 언제든지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시되어야 한다.

세계경제 회복의 시점에 대하여서는 경제전문가
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정부 및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경제가 2002년 2/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며 세계경제도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하반기 이후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근거로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계속된 단기금리 인하로 경기부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과 미국기업들의 빠른 재고조정, 연말 이후 국제유가의 안정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IMF는 미국의 90년대 후반 호황기에 팽창된 제조업의 과잉설비를 해소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적어도 2003년에 들어가서야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MF는 11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02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 수정하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를 0.7%로 낮추었다. 또한 일본의 2002년도 경제성장률은 -1.3%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흘러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대체로 내년 중반 이후 미국경제가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은 석유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유가전망의 중요한 잣대이다.

다음으로 산유국의 생산전략을 살펴보자. OPEC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1일부터 150만 b/d 감산에 들어갔다. 당초 감산조건으로 내걸었던 비OPEC의 50만 b/d 감산공조 요구는 최종적으로 46만 b/d에 그쳐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으나 OPEC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상 OPEC의 감산은 연말부터 기정 사실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따라서 산유국들의 감산 결과 국제유가는 배럴당 \$2~

\$3 정도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OPEC의 감산은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시장에서 유가변동의 시나리오로써 의미를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산유국들의 감산 혹은 증산은 이제 시차가 크지 않은 석유시장 수급상 흐름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원유수출의 문제는 국제원유시장을 판단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올해 이라크 요인은 2가지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이후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가 가운데 이라크가 대상국가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확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장담할 수는 없다. 다른 하나는 UN의 경제제재 기간 연장과 함께 이른바 “smart sanction” 적용에 대한 이라크측의 반발과 그에 따른 원유수출 파행 가능성이다. 당초 2001년 12월에 동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전쟁을 수행중이던 미국이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기존의 방식의 연장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6개월마다 연장해야하는 “Oil for Food Program”에서 오는 6월과 12월의 연장시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의 원유수출 물량은 전세계 공급량의 약 4% 수준으로 특히 수급여건이 타이트한 시기에 전면중단 되면 석유시장의 수급불안 요인으로 발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 테러전쟁의 확전 가능성과 중동평화 요인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석유시장

에 별다른 충격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이 비산유국이 되고 지금까지 항공테러 사건 이후 공급보다 수요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대 테러전쟁이 아프가니스탄 이후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으로 확산된다면 시장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벌써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유혈사태는 언제든지 회교권의 집단적인 대응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태로 중동지역의 평화공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되면 언제나 석유시장에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3. 2002년 유가전망

위와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올해 국제원유가격을 전망하였다.

제 I 안 시나리오는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이 2002년 2/4분기 정도에 가시화 될 경우이다. 동 시나리오 하에서 원유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될 것이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조절을 통한 유가 방어능력도 어느 정도까지

2002년도에 예상되는
국제유가 등락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 중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측면에서 침체상황의
세계경제가 언제쯤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석유소비 위축에 따른 유가 하락 시기에 시행되었던 OPEC의 감산전략이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석유수출국기구의 추가감산을 통한 유가방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 I 안의 시나리오에서 유가는 상반기에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두바이 원유를 기준으로 상반기 유가는 배럴 당 \$16~\$17를 저점으로 평균 19.00 달러 수준, 하반기에는 \$23~\$24를 고점으로 평균 22.00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제 II 안 시나리오에서는 2002년 상반기까지 대 테러전쟁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쟁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석유시장에 상존 한다는 가정이다. 특히 미국의 대 테러전쟁이 우려하던 대로 이라크 등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회교권과의 전면대립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의 반발로 상당기간 동안 원유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석유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인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OPEC은 원유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증산 혹은 감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II 안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는 2002년도 4/4분기 이후에나

가능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세계 석유수요도 상반기까지 2001년도 수준 또는 그 이하 수준에 그치게 되겠지만 원유가격은 상반기까지 전쟁의 영향 때문에 배럴당 2~3달러 정도 위험 프리미엄이 유지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전쟁 상황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석유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반기와는 달리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져서 원유가격은 오히려 상반기보다 약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두바이 원유를 기준으로 2002년 상반기에는 배럴당 평균 \$23~\$25 수준, 하반기에는 평균 \$20~\$22 수준으로 전망된다.

4. 맺음말

2002년도에는 대체로 전년에 비하여 국제유가가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약세의 경우에도 OPEC, 또는 OPEC과 비 OPEC의 감산협조 가능성 때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 이하로 떨어지는 저유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하반기에 경기회복으로 석유수요가 늘어나면서 오를 경우에도 전쟁 상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달러를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